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6월~10월
코스피지수	1860.70	▲+135.26
코스닥지수	611.26	▲+38.25
환율 (원·달러)	1212.50	▼-23.50

지수는 10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13

비즈 프리즘 | 북미·유럽시장서 반응 뜨거운 K-콘텐츠

토종 OTT·웹툰...한류 타고 글로벌 공략

웨이브, NBCU와 콘텐츠 수출 계약
오리지널 콘텐츠에 600억 원 투자
웹툰 기반 애니 '신의 탑' 美서 호평

북미와 유럽 등에서 인기가 높아진 한류 콘텐츠가 빠르게 해외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이 해외 미디어와 손잡고 콘텐츠를 수출하기로 하는가 하면, 한국의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먼저 토종 OTT '웨이브'가 NBC유니버설(이하 NBCU)과 협력한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합작사인 콘텐츠 웨이브는 NBCU와 오리지널 콘텐츠 수출을 골자로 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NBCU는 미국의 미디어와 공동 컴캐스트의 100% 자회사로 드라마와 영화, 스포츠, 뉴스를 제작해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웨이브는 지상파 3사와 함께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NBCU에 공급한다. 향후 3년 동안 매년 최대 5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 지상파 방송 NBC는 물론 영국 Sky채널을 포함해 NBCU 유통 파트너사의 방송 채널과 OTT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한류 콘텐츠가 북미와 유럽 등 새로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 수출 파트너십을 맺은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와 도야마 쇼지 NBC유니버설재팬 최고경영책임자(화면 속), 한국 인기 웹툰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신의 탑'(오른쪽 사진), 사진제공 | 콘텐츠웨이브·네이버웹툰

NBCU가 이르면 이달 중 미국에 출시하는 OTT '파워'에서도 한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웨이브는 한국 시청자에게 더 많은 NBCU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웨이브는 NBCU를 통한 수출 등을 고려해 올해 총 600억 원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는 "이번 협약은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야마 쇼지 NBC유니버설재팬 최고경영책임자는 "서로의 콘텐츠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류 열풍의 한 축으로 성장한 웹툰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의 인기도 심상치 않다. 주인공은 네이버웹툰 원작의 한미일 합작 애니메이션 '신의 탑'이다. 미국 애니메이션 전문기업 크런치롤이 투자·유통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텔레콤 애니메이션 필름이 제작을 총괄했다.

국내 웹툰을 기반으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제작·유통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니메이션 '신의 탑'은 특히 미국에서 인기인데, 지난 1일 첫 방송 직후 미국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9위에

올랐으며 미국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선 주간 인기 애니메이션 랭킹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3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시즌2도 한류 콘텐츠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은 물론 홍콩, 태국, 쿠웨이트, 페루 등 15국이 넘는 국가에서 국가별 '톱10 콘텐츠'에 선정됐다. 또 포브스와 옵저버 등 유력 매체들은 "다시 한번 '워킹메이'를 뛰어넘었다", "'왕좌의 게임'의 정치적 음모와 '기생충'의 계급갈등, 거기에 좀비의 위협을 더했다"고 호평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협력업체와 파트너십...동반성장 이끌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상생경영’ 재걸음

기술개발 컨설팅·설비개선 적극 지원
글로벌 전시회 함께 참가...정보 공유
조 회장이 직접 나서 '애로사항' 청취

효성그룹이 협력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협력업체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평소 조현준 효성 회장은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며 상생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효성은 협력업체의 핵심 경쟁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컨설팅 및 설비 개



조현준 회장

선을 지원해왔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전력기기 부문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조작기 등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업체가 안정적인 공급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춰 원가절감과 매출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협력업체의 품질 개선을 위해 생산 관리 시스템, 원격 검수 시스템 등 설비도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전자 계측장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효성중공업의 협력업체 동반성장 간담회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효성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제품 신뢰도 향상, 불량률 감소에도 기여했다.

이밖에도 협력업체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동반성장 간담회 실시, 매년 해외 연수 실시,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정보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효성티앤씨는 원단 생산 협력업체들과 함께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중국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프랑스 파리 모드 시티를 비롯한 글로벌 섬유전시회에 동반 참가해 왔다. 부스공간을 공동으

로 운영하며 최신 정보 공유는 물론 해외 바이어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시너지를 통해 향후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장기적인 사업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인터텍스타일 2019 전시회'에는 조현준 회장이 직접 참석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마케팅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정욱 기자 jiaay@donga.com



아이파크몰에 '토탈 홈솔루션 체험 공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이 리빙파크 5층에 '토탈 홈솔루션 체험 공간'(사진)을 선보였다. 한샘 디자인파크, 리바트 스타일샵, 일룸, 모던하우스, 무인양품 등으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과 홈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내부 인테리어 자재는 물론 부엌, 욕실, 침실, 거실, 자녀방 등 각 공간의 콘셉트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브랜드별 전문 상담사를 통해 인테리어 컨설팅 및 구매상담을 현장에서 바로 진행 가능하다.

정정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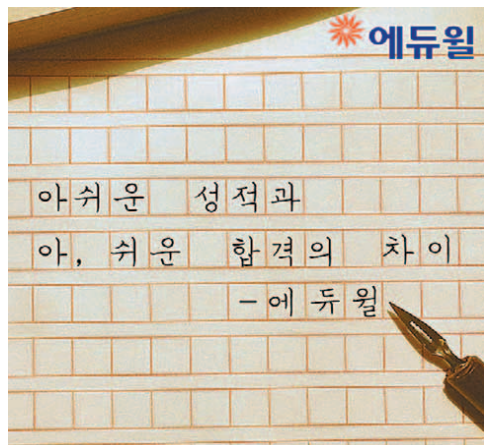
'미에로화이바' 스페셜 패키지 재출시



현대약품은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와 리더스코스메틱과의 콜라베이션 제품 '미에로화이바 스페셜 패키지'(사진)를 총 4만 세트 한정으론 재출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선보인 미에로화이바 스페셜패키지에는 미에로화이바 100ml 20병과 붙이는 시트 마스크인 '미에로화이바 마스크팩', 미에로화이바를 파우더 타입으로 변형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만든 '미에로화이바 플러스' 분말스틱이 들어있다. 분말스틱은 식이섬유를 손쉽게 섭취하도록 도움을 주며, 마스크팩은 N-Pober CO M5와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피부에 생기를 더해준다.

정용운 기자



교육

에듀윌

주택관리사 선발 예정인원 발표

주택관리사 자격증, 지금 시작해도 합격할 수 있을까?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부터 주택관리사 시험제도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커트라인 점수를 넘겨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 예정인원을 정해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이 정해진다.

지난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올해 주택관리사 선발 예정인원을 1700명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마지막 절대평가 시험으

로 많은 응시생이 몰려 최종 합격자 4000여 명에 달하면서, 올해 선발 예정인원인 1700명은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았던 2018년도에는 700여 명이 합격하면서 현재 두 배 정도 되는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고, 난이도가 평범했던 2017년도 합격생 1900명에 비하면 현재 선발예정 인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



가 된다.

주택관리사 평균 합격률보다 4배 높은 합격률

을 기록하고 있는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의 수험전문가는 “올해 1700명이라는 선발인원은 난이도가 평이했던 때와 비슷한 수치로 결국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이번 시험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면서 “지금도 검증된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올바른 학습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에듀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균

합격률보다 무려 4배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 2019년 2년 연속 주택관리사 최고득점 합격생을 배출했고, 57개월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험서를 자체 제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에듀윌은 세 번의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 정부기관상 12관왕에 빛나는 기업으로 주택관리사를 비롯해 공무원 선호도, 인지도 1위에 올랐으며, KRI 한국기록원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세 번 공식 인증받은 종합교육 기업이다. 이와 같은 업계 유일 '합격자 수 최고기록'은 아무도 깨지 못한 기록이다.

이수진 기자 sujin22@donga.com